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박중빈과 비롤리 철학에 나타난 자유관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신영수

박중빈과 비롤리 철학에 나타난 자유관 연구

A Study on a Conception of Liberty in the
Philosophy of Park Chung-bin and Maurizio Viroli

202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신영수

박중빈과 비롤리 철학에 나타난 자유관 연구

지도교수 이 철 승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신영수

신영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설현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강사 이선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 (인)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i
제1장. 서론	1
제2장. 자유관의 이론적 토대	5
제1절. 박중빈의 사은론(四恩論)	5
제2절. 비롤리의 공화주의	8
제3장. 자유관의 논리 구조	12
제1절. 자유의 개념	12
제2절. 자유, 덕과 법	16
제3절. 덕의 형성	20
제4장. 자유관의 덕 교육적 의의	24
제1절. 관여와 책임	24
제2절. 평등과 조화	27
제5장.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A Study on a Conception of Liberty in the Philosophy of Park Chung-bin and Maurizio Viroli

Shin Yeong-su

Advisor : Prof. Lee-Cheol seung Ph.D.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easons for virtue education by analyzing the conception of liberty in the philosophy of Park Chung-bin and Viroli comprehensively. The concept of liberty in the philosophy of Park Chung-bin and Viroli is based on fourfold grace and republicanism theory, respectively. Park Chung-bin knows how to apply the grace of heaven and earth, parents, fellow beings, and laws according to the current practices. Viroli reinterprets republicanism according to the current generations, as the new ideology emphasizes liberty and virtue.

Park Chung-bin and Viroli have a similarity in their perspective on liberty, which means that they both value the concept of liberty. Their liberty means being able to be not dependent. They see liberty as a realization of controlling selfish desires and being exempt from oppression by others. They criticize the negative perspective of seeing liberty as a lack of interference and accept the positive outlook of seeing liberty as controlling selfish desires.

They believe that virtue and laws are necessary to realize liberty.

Notably, they emphasize the formation of virtue. Social equality is required to realize virtue, according to those two scholars. When society is equal, individuals have the motivation to form virtue. According to Park Chung-bin and Viroli, respecting contributors of liberty properly and using their lives as a model for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virtue formation.

The conception of liberty by Park Chung-bin and Viroli has two implications on virtue education. First, teachers have to make efforts to model their behavior to students and be actively involved in addressing problems happening in school. Students need to have a responsibility to be active in teachers' involvement. Second, schools have to overcom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competitiveness. When equality and harmony are realized, students can seek after virtue.

제1장. 서론

오늘날 프리드먼(Friedman, 1912~2006)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프리드먼은 시장의 질서를 교육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곧 그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를 소비자 and 생산자의 관계로 간주한다.¹⁾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능력주의, 개별화, 효율성 등을 추구한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중시한다.²⁾ 이는 학습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의 상품화다.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학습자는 마치 시장의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교육을 취사선택한다.

상품화된 교육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 그 교육은 학습자가 요구하는 입시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입시와 관련 없는 내용들을 덜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성, 민주성, 창의성 등 교육이 포함해야 할 다양한 가치가 소외된다. 또한 교육의 상품화는 학습자 사이의 양극화를 야기한다. 교육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학습자가 받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자유의 의미를 외부 관여의 부재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이 있다.⁴⁾ 곧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은 외부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그 자유관은 소득 재분배, 사회보장제도 운영, 공공주택 보급 등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관여하는 것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⁵⁾ 이러한 자유관으로부터

1)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민병균·서재명·한홍순 옮김, 자유기업원, 2011, 204쪽 참조.
 2) 박지원·김희용, 「신자유주의 교육의 정서로서 '우울'과 '잔혹한 낙관주의」, 『교육사상연구』제33권 제1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9, 80~81쪽 참조.
 3) 남미자 등,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가능성 탐색』,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113~115쪽 참조.
 4) 김형근,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7쪽 참조.
 5)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변동열 옮김, 청아람미디어, 2007, 76~273쪽 참조.

신자유주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이 파생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추구하는 자유관을 극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은 사욕의 지나친 발현과 배타적 경쟁의식의 만연으로 인한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 경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 자유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욕의 통제나 법의 관여와 같은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 연구가 적지 않다. 이철승은 유교공동체주의의 ‘관계적 자유’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⁶⁾ 박혁은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⁷⁾ 강창동은 스미스의 ‘순수한 자유’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⁸⁾ 박영도는 하버마스의 ‘소통적 자유’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이처럼 기존 연구는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자유관과 깊게 관련되는 덕과 법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면에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상가 박중빈(朴重彬, 1891~1943)¹⁰⁾과 이탈리아의 사상가 비롤리(Viroli, 1952~)¹¹⁾는 자유관과 깊게 관련되는 덕과 법을 함께 취급한다. 박중빈은 유(儒)·불(佛)·도(道)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철학에 기반하여 자유관을 정립하였고, 비롤리는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철학에 기초하여 자유관을 정

6)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제18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7) 박혁, 「정치 현상으로서의 자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적 자유’ 개념-」, 『사회와 철학』제18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8) 강창동,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제18권 제3호, 안암교육학회, 2012.

9) 박영도,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과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 『사회와 철학』제31집,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10) 박중빈은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창시했고, 허례의식 폐지와 저축조합 설립 등 사회·경제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유(儒)·불(佛)·도(道) 등 전통사상을 계승하여 원불교 철학을 정립하였다.

11) 비롤리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와 스위스 루가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마키아벨리와 루소의 정치사상에 기반하여 현대 공화주의를 정립하고 있다.

립하였다.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과 법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고, 자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들은 덕을 형성하여 사욕을 통제하고, 법을 통해 타인에 의한 억압에서 해방될 때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그들의 관점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욕의 지나친 발현과 배타적인 경쟁 사회를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을 함께 취급한 선행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박중빈의 자유관과 비롤리의 자유관을 각각 고찰한 연구가 존재한다. 김기원은 박중빈의 자유관이 지향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 실현으로 판단한다.¹²⁾ 박희종은 박중빈의 자유관의 핵심을 마음의 자유로 파악한다.¹³⁾ 이한메는 박중빈의 자유를 마음의 안정으로 해석한다.¹⁴⁾ 최준화는 비롤리의 자유관이 법과 공공선을 강조한다고 말한다.¹⁵⁾ 정태창은 비롤리의 자유관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관계를 모두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환원한다고 주장한다.¹⁶⁾ 신호재는 비롤리의 자유관이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⁷⁾

이와 같이 선행 연구는 박중빈의 자유관과 비롤리의 자유관을 분석할 때 각각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집중한다. 이는 박중빈의 자유관과 비롤리의 자유관의 특징 및 그 자유관에 나타난 논리 구조와 현실적 의의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들의 자유관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때 그 논리 구조와 현실적 의의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이 글은 박중빈과 비롤리 철학의 자유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그 덕교육의 참된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박중빈의 사은론과 비롤리의 공화

12) 金基圓, 「圓佛敎 自由觀」, 『圓佛敎思想試論』I輯, 圓佛敎出版社, 1982.

13) 박희종, 「소태산 박중빈의 인권사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54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14) 이한메, 「한국 근대 신종교의 ‘자유’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원불교의 교리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제5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15) 최준화, 「자유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6) 정태창,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의 딜레마」, 『철학사상』제47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17) 신호재, 「공화주의적 자유와 애국심 교육」, 『도덕윤리과교육』제39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주의에 나타난 그들의 자유관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에 나타난 논리 구조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그들의 자유관이 시사하는 덕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자유관의 이론적 토대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각각 사은론(四恩論)과 공화주의를 토대로 형성된다. 박중빈은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법률은(法律恩) 등의 사은을 현실에 맞게 사용한다. 비롤리는 자유와 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시대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한다.

제1절. 박중빈의 사은론(四恩論)

박중빈의 사은론은 불교 은혜론의 영향을 받았다.¹⁸⁾ 불교 경전에서 언급된 은혜론은 여래의 은혜[如來恩], 법을 설하는 승려의 은혜[說法法師恩], 부모의 은혜[父母恩], 중생의 은혜[衆生恩], 국왕의 은혜[國王恩], 부처와 불법과 승가의 은혜[三寶恩], 스승과 어른의 은혜[師長恩], 시주의 은혜[施主恩] 등이다.¹⁹⁾

박중빈은 이러한 불교의 여러 은혜론을 천지은·부모은·동포은·법률은 등의 사은론으로 재구성한다. 그 사은론 가운데 천지은은 하늘과 땅을 비롯한 자연의 은혜를 말하고, 부모은은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의미하며, 동포은은 인류와 만물의 은혜를 말하고, 법률은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과 규칙의 은혜를 의미한다. 그는 불교의 은혜론 가운데 부모은을 수용하고, 중생은을 동포은으로 변용하였다. 그러나 천지은과 법률은은 그가 창안한 것이다.

박중빈은 사은의 논리로 세계를 설명한다. 그는 사은을 우주의 가득 채워진 만물의 존재 근거로 생각한다.²⁰⁾ 곧 그는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은이 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이는 그가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을 수용한 것이다. 불교의 연기론에 따르면 세계와 개별자는 직접 원인[因]과 간접 원인[緣]의 결합 작용에 따라 생성된다.

18) 방립천, 「사은사상과 세계의 조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3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5쪽 참조.

19) 이상원, 「은(恩)의 연원과 실천원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77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164쪽 참조.

20) 圓佛敎 圓光社 編, 「會報 第四十六號」, 『圓佛敎資料叢書』第IX卷, 圓佛敎出版社, 1984, 37쪽 참조.

박중빈은 이러한 연기를 은혜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박중빈에 따르면 한 개체는 다른 개체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개체의 존재 근거이다. 곧 각각의 개체는 스스로 존재 근거를 갖는 고정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개체의 인연 작용으로 생성된 변화하는 존재이다. 그에 의하면 한 개체는 다른 개체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다른 개체의 존재 근거가 되었기에 은혜를 베풀었다. 곧 모든 개체는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상호적인 은혜 관계를 형성한다.

박중빈은 사람의 존재 근거를 사운으로 이해한다. 그는 천지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그 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천지에 물과 공기가 있고, 해와 달을 포함한 천체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부모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그 은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지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동포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그 은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사농공상(士農工商) 등 직업에 종사하는 동포가 있기 때문에 학문을 공부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생활에 편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는 법률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그 은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법률이 사람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시비 이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기관을 설립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된다.²¹⁾

이처럼 그는 사운을 개인의 존재 근거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운과 개인은 일방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다. 사운이 개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곧 개인은 천지의 일부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이고, 동포의 일원이며,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운과 개인은 긴밀하게 관계한다. 그는 이러한 사운에 대하여 사람이 보은(報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보은은 은혜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²²⁾

사운에 대한 보은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다. 박중빈은 천지의 도를 따르는 것을 보은으로 이해한다. 그는 천지의 도를 응용무념(應用無念)으로 파악한다. 응용무념은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천지가 집착

21)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15~21쪽 참조.

22)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15~16쪽 참조.

없이 작용하여 만물을 생육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 없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그는 사람을 도울 때 시혜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천지은에 대한 보은으로 간주한다.²³⁾

이러한 천지은은 부모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박중빈은 부모의 도를 따르는 것을 보은으로 생각한다. 그는 부모의 도를 약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는 부모가 약한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천지는 만물을 생육하고, 부모는 자식을 생육한다. 이는 그가 천지은과 부모은을 통해 타인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⁴⁾

또한 그는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모까지 보호하고 공경할 때 부모은에 대한 보은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부모은에 대한 보은은 곧 동포은에 대한 보은으로 연결된다. 곧 보은의 대상이 자신의 가족을 거쳐 타인으로 확장된다. 박중빈에 따르면 동포는 넓은 의미에서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지시하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사농공상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에 의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이로우며 준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직업을 갖지만, 동시에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타인에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동포은의 도를 자신과 타인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로 본다. 그리고 그는 자리아타의 마음가짐을 갖고서 동포를 대우하는 것을 동포은에 대한 보은으로 간주한다.

특히 박중빈은 천지은·부모은·동포은 등에서 규명한 보은의 내용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법은 천지은·부모은·동포은 등에 대한 보은의 내용을 규범화한 것이다. 곧 이러한 법은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정의롭고 공정한 규칙이다. 그는 개인·가정·사회·국가 등 각각의 단위에 해당하는 법을 배우고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법률은의 도는 법을 기준으로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 옳은 것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을 기준으로 그릇된 것을 제거하면서 옳은 것을 세우는 것이 법률은

23)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15~16쪽 참조.

24)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17~18쪽 참조.

에 대한 보은이다.²⁵⁾

이와 같이 박중빈은 천지은과 부모은에 대한 보은을 타인을 대가 없이 돌보는 것과 약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동포은에 대한 보은을 인간관계에서 자리아타를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법률은에 대한 보은을 법을 기준으로 그릇된 것을 제거하면서 옳은 것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은에 대한 보은은 각각의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사회 정의는 법률은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박중빈의 자유관은 이러한 사은론을 토대로 형성된다. 그는 자유를 사은에 대한 보은을 통해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그는 법률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2절. 비롤리의 공화주의

비롤리는 공화주의를 “자유를 원리를 숭상하면서 이 자유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적·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한 정치이론 체계”²⁶⁾로 정의한다. 또한 그는 공화주의가 적용된 국가를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²⁷⁾로 규정한다. 이는 그가 공화주의의 궁극적 이상을 자유의 실현으로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비롤리는 기존의 공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공화주의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 논쟁과 현실 정치를 겪으면서 다양한 갈래로 분화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공화주의는 목적적 공화주의 대 도구적 공화주의, 강한 공화주의 대 약한 공화주의, 신아테네 공화주의 대 신로마 공화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²⁸⁾ 이 가운데 비롤리

25) 金山泰治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1~22쪽 참조.

26)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33~34쪽.

27)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5쪽.

28) 목적적 공화주의는 덕을 목적으로 파악하고, 도구적 공화주의는 덕을 도구로 간주한다. 또한 강한 공화주의는 능동적인 자유 실현을 강조하고, 약한 공화주의는 수동적인 자유 실현을 중시한다. 조일수,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倫理研究』제80호, 한국윤리학회, 2011, 294~296쪽 참조. 이계일, 「공화국 원리의 함의에 대한 이념사적 고찰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

의 논의와 밀접한 것은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이다. 신아테네 공화주의는 아테네 정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한다. 그 공화주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자유의 본질로 본다. 반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로마의 정치와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수용한다. 그 공화주의는 타인에게 구속되지 않는 것을 자유의 본질로 본다. 이 때문에 신아테네 공화주의는 시민이 덕을 형성하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신로마 공화주의는 공정한 법을 제정하여 힘을 지닌 사람의 자의성을 차단하는 것을 중시한다.

비롤리는 그 가운데 신로마 공화주의를 옹호한다. 그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공화주의의 이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과 덕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강화되었다. 신아테네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샌델(Sandel, 1953~)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적 이상은 시민의 덕과 정치 참여를 자유에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 …… 자유 도시나 자유 공화국의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자유롭다는 것이다.”²⁹⁾라고 말한다. 이는 샌델이 오직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직접 통치할 때 자유가 실현되는 것으로 여김과 동시에 자치와 자유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롤리는 “자유와 자기 통치(자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후자를 전자를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 여겼다.”³⁰⁾라고 비판한다. 비롤리에 따르면 자치는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자유를 도출하지 못한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보다는 통치와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공선에 진정으로 봉사하려 하느냐 여부”³¹⁾라고 하여, 시민의 자치만으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다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국가가

의 유형화와 그 법적 구체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法學研究』제21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1, 92쪽 참조. 이충한, 「본래적 공화주의와 도구적 공화주의 -자유와 자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제128집, 대한철학회, 2013, 214~233쪽 참조.

29)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45쪽.

30)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13쪽.

31)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40쪽.

공공선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우선한다. 곧 시민의 자치는 국가의 공공선에 부합할 때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견해는 자치를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는 샌델과 다르다.

그러나 비롤리는 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비롤리는 공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덕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공통된 견해이다. 신로마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페티트(Pettit, 1945~) 또한 덕을 중시한다. 페티트는 ‘시민적 교양’을 통해 전통적인 덕 개념을 수용한다. 이때 교양은 시민적 규범의 내면화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이 교양을 갖출 때 법을 보완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잘 사용할 수 있다.³²⁾

비롤리는 이러한 페티트의 견해를 공화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한다. 비롤리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공화주의는 공화국과 자유의 이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양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윤리(또는 시민적 덕성)가 필요하다는 이념의 주장에 의해 다른 정치사상의 전통들과 구분된다.”³³⁾라고 지적한다. 이는 그가 덕을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로 보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덕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가치이다. 비롤리는 덕을 공화주의의 핵심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파악한다.

이처럼 비롤리는 덕의 형성을 중시하며, 시민의 자치를 부분적으로 긍정한다. 비롤리는 “공적 참여는 공화국이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공화국이 자신들의 것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³⁴⁾라고 지적한다. 이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공선을 지향하고 덕을 형성하는 동기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곧 그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반드시 자유와 공공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2) 페티트는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공화주의의 자유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화주의의 자유는 한 사람의 자유가 실현될 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실현되므로 공공성을 지닌다. 곧 그 자유는 사회적이면서 공공성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페티트는 그 자유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필립 페티트, 『신공화주의』, 박준혁 옮김, 나남, 2012, 239~448쪽 참조.

33)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8쪽.

34)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99쪽.

비롤리의 자유관은 이러한 공화주의를 토대로 형성된다. 그는 자유를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이자, 덕과 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제3장. 자유관의 논리 구조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에 대하여 관여하되,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사욕에 구속되지 않고,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지 않을 때 자유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관여의 부재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자유를 사욕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수용한다. 그들에 따르면 사욕과 타인에 의한 억압과 같은 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덕과 법이 필요하다. 특히 그들은 덕의 형성을 중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사회의 은혜를 받을 때 덕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절. 자유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유를 논할 때 벌린(Berlin, 1909~1997)의 견해를 주목한다.³⁵⁾ 벌린은 자유의 개념사를 분석하여 그 가운데 핵심 관점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규정한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타인의 관여 없이 방임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곧 그는 소극적 관점을 타인으로부터 관여 받지 않고 방임될 때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그는 적극적 자유를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곧 그는 적극적 관점을 사욕을 통제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때 자유가 실현될 것으로 파악한다. 벌린은 이처럼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대립시키고, 그 가운데 소극적 자유만 진정한 자유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이해한다.³⁶⁾

35) 김비환은 “자유에 대한 오늘날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벌린의 자유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 형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라고 지적한다. (김비환,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198쪽 참조.) 특히 벌린은 방임을 자유로 보는 소극적 관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방임의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에 영향을 주었다. (김형근,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7~54쪽 참조.) 또한 박중빈은 방임의 자유를 비판하는 글이 실린 잡지를 발행하는 등 방임의 자유를 부정적으로 이해했고, 비롤리는 방임의 자유를 주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圓佛敎 圓光社 編, 「會報 第61號」, 『圓佛敎資料叢書』第X卷, 圓佛敎出版社, 1984, 424~427쪽 참조.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96~101쪽 참조.)

36) 이샤야 벌린, 『이샤야 벌린의 자유론』, 박동천 옮김, 아카넷, 2014, 343~ 363쪽 참조.

그러나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를 구속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³⁷⁾ 이때 구속은 사욕과 타인에 의한 억압을 포함한다. 구속과 관여는 다르다. 구속은 사욕의 지나친 발현과 타인의 억압 등으로 자유를 침해하지만, 법의 관여는 이러한 구속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³⁸⁾

박중빈은 자유를 방임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관점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삶의 목적은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유를 방임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한다.³⁹⁾ 소극적 자유를 비판하는 그의 견해는 다음 문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 사람이 “계율이란 인생에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 계율은 도리어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개인 교화의 측면이나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 듯합니다.”⁴⁰⁾라고 묻자, 박중빈은 “도저히 방임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이 세상에 다른 법과 다른 사람과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이 오직 나 혼자뿐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태도로 부당한 일이거나 당연한 일이거나 마음 가는대로 해도 별 관계없겠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여 모든 법망이 정연하고 인류 사회가 지켜봅니다.”⁴¹⁾라고 답한다.

이때 계율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외부의 행위 규범에 해당한다. 질문자의 견

37) 金山泰治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1~22쪽 참조.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42쪽 참조.

38) 페릿과 비롤리는 관여와 지배를 구분한다. 이때 지배는 자의적인 관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는 가시적인 관여가 없더라도 관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언제든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타인이 존재한다면 이때 개인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관여받지 않지만 지배받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롤리는 이러한 지배를 구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필립 페릿, 『신공화주의』, 곽준혁 옮김, 나남, 2012, 73~81쪽 참조.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91~104쪽 참조.) 그러므로 비롤리에게서 구속은 지배와 같지만, 관여와 다르다.

39) 원불교 교서편수위원회 편, 『대종경(大宗經)』, 『圓佛敎全書』, 圓佛敎正化社, 1977, 315~323쪽 참조.

40) 이 내용은 다음의 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戒律이라하난것이人生의게엇더한必要가잇나니가?……戒律이라하난것은도로혀純眞한天性を抑壓하고自由의精神을束縛하야個人敎化上으로나敎會發展上으로적지안흔支障이되난듯합니다.” 圓佛敎 圓光社 編, 「月末通信 第參號」, 『圓佛敎資料叢書』第1卷, 圓佛敎出版社, 1984, 95쪽.

41) 이 내용은 다음의 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到底히放許할수업난일이라합니다 …… 이世上에다른法과다른사람과다른物件이하나도업시오즉나혼자뿐이라면自行自止로不當한일이거나當然한일이거나마음가난대로하야도別關係업것지마는世上은宛然히그릇치안이하야모든法網이整然하고人類社會가環視하니” 圓佛敎 圓光社 編, 「月末通信 第參號」, 『圓佛敎資料叢書』第1卷, 圓佛敎出版社, 1984, 98~100쪽.

해는 계율이라는 외적 관여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곧 질문자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그러나 박중빈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욕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고,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리질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그가 방임과 자유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⁴²⁾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이 계율이라는 외부의 관여를 수용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유와 관여를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는 박중빈의 견해는 인간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여하는 존재로 보는 그의 사은론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인간이 서로 관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개인이 외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그는 관여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관여를 받더라도 주종적인 관계로 구속되지 않는다면 자유가 실현된 것이다.

비롤리 또한 소극적 자유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공화주의는 자유의 원리를 숭상한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자유를 관여와 깊게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⁴³⁾ 이는 그가 방임의 자유가 아니라, 관여의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는 ‘착한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통해 소극적 자유의 문제점을 말한다. 그는 주인이 인자하기 때문에 노예를 방임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때 노예는 주인의 관여를 받지 않고 생활한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노예는 그로부터 가혹한 벌을 받을 수 있다.⁴⁴⁾ 이는 소극적 관점에서 노예의 자유가 실현된 것이다. 노예가 주인의 관여 없이 방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비롤리의 관점에서 부자유한 것이다. 가시적인 관여는 드러나지 않지만, 주인이 노예를 구속하는 상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주인이 인자하여 노예를 방임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노예에게 벌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노예의 삶의 결정권이 여전히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롤리는 자유를 방임으로 보는 관점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42) 원불교 교서편수위원회 편, 「대종경(大宗經)」, 『圓佛敎全書』, 圓佛敎正化社, 1977, 323쪽.

43)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33~108쪽 참조.

44)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93~94쪽 참조.

한편 적극적 자유는 사욕을 통제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중빈은 이러한 적극적 관점을 수용한다. 그는 사욕을 소에 비유한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 있었다.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사람도 따라서 들어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들어가며, 들로 가면 들로 들어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옷은 다 찢기고 살과 뼈가 부서지며 얼굴이 성한 곳이 없어 차마 볼 수 없었다.”⁴⁵⁾라고 설명한다. 이는 사람이 소에게 이끌리는 것이 문제이듯이, 삶이 사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를 방치할 때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사욕을 방임할 때 삶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중빈은 “소를 이미 발견하고 길들이는 법을 알았으며 더욱이 소가 그대의 말을 잘 듣게 되었다고 하니 더욱 힘써서 모든 일에서 자유롭도록 소를 길들이도록 하라”⁴⁶⁾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사욕에 의해 삶이 구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욕을 통제할 때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비롤리 또한 적극적 자유를 수용한다.⁴⁷⁾ 그에 따르면 자유는 덕 있는 품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여기에서 덕은 공공선에 봉사하고자 하는 각오와 능력을 의미한다.⁴⁸⁾ 이 때문에 덕 있는 품성을 지니는 것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늘 자신의 사욕을 통제하여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자유와 덕을 연결시키는 그의 견해는 개인이 사욕에 구속되지 않을 때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45) 이 내용은 다음의 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어떠한사람이 소를타고가난것을보니 참으로 우스운일이잇더라 사람의꺀리대로 소를끌지못하고 소의꺀리권리에 사람이끌여가난대 그소가가시밭이나 구렁으로들어가면 사람도따라서들어가고 산산으로가면 산산으로 들노가면 들노 끌여가서 잡바지고 엎쳐지니 衣服의복은 다찢기고 살과뼈가부서지며 얼굴이성한대가없어 참아볼수 없더라” 圓佛教 圓光社 編, 『會報 第30號』, 『圓佛教資料叢書』第VII卷, 圓佛教出版社, 1984, 311~312쪽.

46) 이 내용은 다음의 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소를 이미發見발견하고 길드리난法법을알었으며 더욱이 소가그대의말을잘듣게된다하니 더욱 힘써서 百千萬事백천만사를 自由自在자유자재하도록 소의질을들일것이니라” 圓佛教 圓光社 編, 『會報 第30號』, 『圓佛教資料叢書』第VII卷, 圓佛教出版社, 1984, 312~313쪽.

47) 김연미, 「자유와 법의 관계 -공화주의적 자유 관념-」, 『亞細亞女性法學』제14호, 아세아여성법학회, 2011, 30쪽 참조.

48)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49~145쪽 참조.

이는 사람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간주하고, 사익을 공익의 부분으로 파악하는 그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사람이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사욕의 통제를 추구하는 적극적 관점을 수용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박중빈과 비롤리는 강조점이 다르다. 주로 박중빈은 개인의 방임을 사욕의 문제와 관련시키지만, 비롤리는 개인의 방임을 타인의 억압과 관련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관여의 부재로 보는 소극적 관점을 반대하고, 사욕의 통제를 추구하는 적극적 관점을 수용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제2절. 자유, 덕과 법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덕과 법을 말한다. 곧 그들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덕과 법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박중빈은 덕과 법을 구분한다. 그는 덕과 법을 사계절의 바람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봄과 여름의 바람은 만물을 생장시키는 온화한 바람이지만, 가을과 겨울의 바람은 만물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숙한 바람이다. 여기에서 봄과 여름의 바람은 사람을 온화한 방법으로 교화하는 덕에 해당하지만, 가을과 겨울의 바람은 옳고 그름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에 해당한다.⁴⁹⁾ 곧 덕은 온화한 방법으로 사람을 교화하지만, 법은 옳고 그름을 엄정하게 판단하여 옳은 것은 진작시키고 잘못된 것은 제지한다.

그는 덕과 법을 어머니와 아버지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이는 자식을 낳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덕과 법이 다르지만, 조화롭게 결합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덕은 행위 이전의 마음을 교

49) 圓佛敎 圓光社 編, 「會報 第16號」, 『圓佛敎資料叢書』第VI卷, 圓佛敎出版社, 1984, 38쪽 참조.

화하고, 법은 행위를 판단하여 상과 벌을 집행한다.⁵⁰⁾ 이는 덕을 성품과 관련시키고, 법을 행위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덕을 지니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덕은 진정성과 적극성을 포함한다. 덕을 지닌 사람은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나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권면하지만, 내면의 성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은 진정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면에 한계가 있다. 한편 덕은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덕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는 면에 제한적이다. 그러나 법은 상벌을 사용하여 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권하고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처럼 덕과 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⁵¹⁾ 박중빈의 견해는 이러한 덕과 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 곧 그는 덕과 법을 구분하지만, 서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비롤리 또한 덕과 법을 구분하지만, 조화롭게 작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상벌을 활용하는 국가권력과 법은 행위의 동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직 행위의 외관만을 규율할 뿐이어서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⁵²⁾라고 지적한다. 이는 법이 개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지만, 내면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법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게 한다. 그러나 법은 개인의 동기에 깊이 개입하는 면에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그는 “내적 동기를 자극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할 어떤 다른 힘”⁵³⁾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덕을 말한 것이다. 곧 그는 덕이 내면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처럼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과 법을 상호 보완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덕과 법을 자유와 밀접한 관계로 파악한다.

박중빈은 덕과 법을 자유와 연결시킨다. 그는 덕을 형성할 때 자유가 실현될

50) 원불교 교서편수위원회 편, 「대종경(大宗經)」, 『圓佛敎全書』, 圓佛敎正化社, 1977, 136쪽 참조.

51) 한상수, 「법에 있어서 덕의 역할」, 『법철학연구』제19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6, 8~26쪽 참조.

52)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84쪽.

53)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84쪽.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욕을 통제하고 성품을 맑게 할 때 덕이 형성되는데, 이는 자유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곧 덕을 갖춘 사람은 사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그는 법을 통해 타인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법이 타인을 통제하여 개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없거나, 혹은 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는 붕괴되고, 개인은 힘을 지닌 타인에게 억압받는다.⁵⁴⁾

비롤리 역시 덕과 법을 자유와 관련시킨다. 그는 사욕을 통제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는 덕을 형성할 때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활동에 봉사하는 것,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 등 적극적인 덕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는 법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이 개인에게 관여하지 않으면 힘을 가진 타인이 개인을 억압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로울 수 없다.⁵⁵⁾

이처럼 박중빈과 비롤리는 주로 덕을 사욕의 통제와 관련시키고, 법을 타인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과 관련시킨다.⁵⁶⁾ 그러나 덕은 타인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 역시 사욕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곧 덕은 적극적인 도덕적 실천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데 기여하고, 법은 사욕을 종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함으로써 사욕을 통제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과 법에 대해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박중

54) 圓佛敎 圓光社 編, 「會報 第57號」, 『圓佛敎資料叢書』第X卷, 圓佛敎出版社, 1984, 115쪽 참조. 金山泰洽 編,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2쪽 참조. 원불교 교서편수위원회 편, 「대종경(大宗經)」, 『圓佛敎全書』, 圓佛敎正化社, 1977, 393쪽 참조.

55)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08~145쪽 참조.

56) 박중빈과 비롤리는 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행법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박중빈은 법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에 한정한다. 곧 박중빈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법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박중빈은 인간의 악행 가운데 악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장 큰 잘못으로 생각한다. (金山泰洽 編,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1쪽 참조. 원불교 교서편수위원회 편, 「대종경(大宗經)」, 『圓佛敎全書』, 圓佛敎正化社, 1977, 224~225쪽 참조.) 비롤리는 법이 공공선을 지향할 때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곧 비롤리는 공공선과 유리된 법을 긍정하지 않는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38~159쪽 참조.) 이 때문에 박중빈과 비롤리는 현행법 가운데 잘못된 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빈은 ‘사람의 덕’을 말하고, 비롤리는 ‘시민의 덕’을 논한다.⁵⁷⁾ 박중빈이 말하는 사람의 덕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박중빈은 다양한 상황마다 따라야 할 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도리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덕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덕을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⁵⁸⁾ 한편 비롤리가 말하는 시민의 덕은 시민에게 해당하는 덕을 의미한다. 비롤리는 공화주의의 시민 개념을 수용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시민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영역의 우위’, ‘개인 이익의 공공선 예속’ 등을 중시한다.⁵⁹⁾ 또한 법에 대해 박중빈은 입법을 논하지 않지만, 비롤리는 시민의 입법 참여가 법의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덕과 법을 자유와 관련시키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는 덕과 법의 기능을 분석하는 면에서 일치한다. 그들은 법이 덕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그들은 덕을 주목한다. 덕은 법보다 내면의 동기를 취급하는 면에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법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오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하여 덕을 갖춘 사람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덕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57) 사람과 시민 개념은 차이가 있다. 사람은 공동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시민은 공동체 없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사람은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시민은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강대현,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사회과 교육』제46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7, 90쪽 참조.

58) 圓佛敎 圓光社 編, 「會報 第35號」, 『圓佛敎資料叢書』第Ⅶ卷, 圓佛敎出版社, 1984, 698~700쪽 참조.

59) 비롤리가 사용하는 공화주의의 덕은 덕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덕 개념과 초점이 다르다. 피터슨에 의하면 덕 윤리학은 ‘유덕한 사람’을 지향하지만, 공화주의는 ‘유덕한 시민’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덕 윤리학은 덕을 전인적인 삶의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공화주의는 덕을 공적 영역에 집중시킨다. 그런데 피터슨은 덕을 공적 영역에 한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유덕한 시민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덕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터슨은 공화주의의 덕과 덕 윤리학의 덕의 초점이 다르지만,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앤드류 피터슨, 『시민 공화주의와 시민교육』, 추병완 옮김, 하우, 2020, 172~192쪽 참조.

이해한다.

제3절. 덕의 형성

박중빈과 비롤리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박중빈은 다양한 관계마다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이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덕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롤리 또한 개인이 공공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덕을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⁶⁰⁾

그들은 구체적인 덕목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박중빈이 생각하는 덕목은 집착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나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 정의로운 것을 세우고 불의한 것을 제거하는 것 등이다. 비롤리가 생각하는 덕목은 사익과 공익을 연결하는 지혜, 관대한 정신, 공적 참여의 욕구, 불의에 저항하는 힘 등이다.⁶¹⁾ 이러한 그들의 덕목은 사익과 공익을 밀접한 것으로 파악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사람은 보은을 중시한다. 박중빈이 사은론에서 천지·부모·동포·법률 등의 은혜와 그에 대한 보답을 강조한 것처럼 비롤리도 보은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비롤리는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교육을 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비롤리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은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개인이 사회의 공익에 봉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⁶²⁾

박중빈과 비롤리에 의하면 이러한 보은은 덕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람은 사회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덕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기 때문

60) 圓佛敎 圓光社 編, 「會報 第35號」, 『圓佛敎資料叢書』第VII卷, 圓佛敎出版社, 1984, 698~700쪽 참조.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68쪽 참조.
 61)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참조.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8~19쪽 참조.
 62) 마우리시오 비롤리, 『나라 사랑을 말하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박익경 옮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31~32쪽 참조.

이다. 곧 개인이 사회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은혜로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 이러한 동기에 기인하여 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덕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박중빈은 덕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방안으로 ‘자력 양성(自力 養成)’, ‘지자 본위(知者 本位)’, ‘타자녀 교육(他子女 教育)’, ‘공도자 숭배(公道者 崇拜)’ 등을 설명한다.⁶³⁾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다.

그 가운데 ‘자력 양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박중빈은 특히 성 차별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긴다. 그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 재산권, 직업의 권리 등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곧 그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⁶⁴⁾

‘지자 본위’는 ‘자력 양성’에서 언급한 성 차별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오직 배움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박중빈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 양반과 상민의 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 노인과 어린이의 차별 등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고, 도덕·학문·기술 등을 힘써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신분과 지위가 아니라, 지식과 배움을 중시하는 사회를 말한 것이다.⁶⁵⁾

박중빈은 이러한 배움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교육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과거의 교육이 가정에 국한된 것을 비판한다. 그는 가정 이 교육을 담당하면 학생의 형편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그는 ‘타자녀 교육’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타자녀 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자녀를 동등하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그는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등을 통해 차별을 반대한다. 그는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기여한 공로자를 사회적으로 대우하고, 교육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에 헌신한 사람을 극진히 대우하는 모

63)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2쪽 참조.
 64)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2~23쪽 참조.
 65)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4쪽 참조.
 66)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4~25쪽 참조.

습을 보여주고, 이들의 삶을 교육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중빈 철학을 계승하는 원불교는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공로자로 대우한다. 이들의 삶이 추앙받고 교육에 사용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 삶을 본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때문에 박중빈은 ‘공도자 숭배’를 중시한다.⁶⁷⁾

이처럼 박중빈은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등을 통해 차별을 반대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공로자에 대한 기념을 강조한다. 곧 그는 이러한 내용이 실현될 때 개인이 사회의 은혜를 인식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개인의 마음이 덕의 형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이해한다.

비롤리는 덕의 형성을 논하면서 사회 평등, 공로자 기념, 교육 등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으로 평등을 실현할 때 개인이 덕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그가 강조하는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이다. 그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간 재산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의 격차가 심하면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⁸⁾

예컨대 부유한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롤리는 법에서 배제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하고, 법을 지배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인 간 재산의 격차를 좁힐 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고 인식할 때 사회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이러한 애착이 덕의 형성으로 연결된다.⁶⁹⁾

67) 金山泰治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25~26쪽 참조. 강법진, 「천도, 치유된 아픔이 평화세상 이끈다」, <원불교신문>, 2016년 4월 15일(<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69> (20210608 검색)) 참조. 윤관명, 「오월의 금남로 붉은 꽃 지던 날 광주교당 범종은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원불교신문>, 2021년 5월 12일(<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56> (20210608 검색)) 참조.

68)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40~143쪽 참조.

69)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42~143쪽 참조.

또한 비롤리에 따르면 공익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우하고, 그의 이야기를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덕을 형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로자를 타인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로자를 기념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미국과 프랑스를 언급한다. 비롤리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한 공로자들을 기념해왔다. 그리고 두 나라는 공로자들의 이야기를 교육의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도덕적 의무감을 고취한다. 비롤리는 덕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공로자들의 이야기를 교육에 반영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삶의 지표를 상실하게 된다. 삶의 지표를 상실한 사람들은 긍지를 잃고 비굴해진다. 이러한 바탕에서 덕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롤리는 교육의 자료로서 공로자의 이야기를 중시한다.⁷⁰⁾

이와 같이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 박중빈은 나이와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의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형식적 평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 비롤리는 법 앞의 평등을 말하면서 동시에 결과의 문제에 주목한다. 예컨대 그는 개인 간 재산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그가 형식적 평등은 물론 실질적 평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⁷¹⁾

그러나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의 형성을 논하면서 차별을 비판하고 공로자에 대한 대우를 중시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그들이 덕의 형성을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70)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161~190쪽 참조.

71) 형식적 평등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질적 평등은 이러한 자격의 차이를 만든 차별적인 사회적 조건을 평등하게 시정하고, 다른 대우에 따른 결과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되지만, 실질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은 물론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포함한다. 석인선,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법학논집』제16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8쪽 참조.

제4장. 자유관의 덕 교육적 의의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덕 교육에 사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교사의 관여를 통해 학생의 자유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의 형성과 사회의 평등을 밀접한 관계로 이해한다. 이는 학생의 덕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 환경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1절. 관여와 책임

자유는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이므로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⁷²⁾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유의 의미를 방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임의 자유는 학생의 개성과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교사의 관여를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이는 오늘날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둘째, 교사가 학생 간 학습의 격차를 방관한다. 셋째, 교사가 학생의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넷째, 교사가 학생의 자아실현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섯째,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⁷³⁾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면에 사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방임을 비판하고 관여를 중시한다. 또한 그들은 사욕을 통제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타인에 의해 억압되지 않을 때 자유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덕의 형성과 관련시킨다. 이러한 그들의 관점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⁷⁴⁾

72) 조영태, 「도덕 교육의 목적으로서 합리적 자유의 의미: 피터즈와 관념론을 중심으로」, 『韓國教育』제28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2001, 58쪽 참조.

73) 이 글은 중등교육의 교사와 학생을 취급한다.

74) 일반적으로 공화주의는 참여를 중시한다. 그러나 비롤리는 참여보다 관여를 강조한다. 비롤리는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법의 관여를 통한 자유의 실현을 우선한다.

첫째,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덕을 지녀야 한다. 교사가 덕을 형성하여 모범이 될 때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의 덕이란 측은지심의 토대 위에 공감 능력의 배양을 통해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교육에서 중시하는 ‘모델링’의 교수법과 관련된다. 모델링은 학생이 교사의 교육을 통해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교사의 관여를 통해 학생 간 학습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생들은 제각기 다른 성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다. 이는 학생의 자질과 환경에 따라 학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방임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지만, 재능이 부족한 학생은 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지만, 가난한 가정의 학생은 사교육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곧 교사는 모든 학습을 학생의 몫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여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과 학생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학생이 잘못된 결정을 강요한다면 교사는 학생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관여하여 수정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선호를 모두 긍정하기보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자아실현을 촉진해야 한다. 방임은 개인의 사욕을 방치한다. 방임은 사욕과 같은 영역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그러나 사욕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곧 사람이 사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계획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회는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학생은 자신의 내면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

또한 박중빈은 참여를 언급하지 않지만, 법과 계율 등의 관여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 때문에 이 글은 덕 교육의 의미로 ‘관여’를 주목하고자 한다.

로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컨대 박중빈 철학을 계승하는 원불교 재단의 학교들은 학생을 위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조하는 훈련, 사욕이 극심해지는 것을 멈추는 연습, 내면의 상태를 일지에 기록하는 활동,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책임 있게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때 담당 교사는 마음공부의 안내자로서 학생들의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참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교사의 관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⁷⁵⁾

다섯째, 교사는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개인은 방임될 때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곧 교사가 관여하지 않을 때 학생은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따돌림과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관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 관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교사가 학생을 방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사한다. 특히 박중빈과 비롤리는 덕의 형성과 법의 관여를 중시한다. 이는 교사가 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칙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학생에게 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학생은 책임 있는 태도로 교사의 관여를 대해야 한다. 곧 학생은 교사의 관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맹목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교사의 적극적인 관여와 학생의 책임 있는 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덕 교육의 의의가 확대될 수 있다.⁷⁶⁾

75) 권동우, 「원불교의 대안교육 -사회개혁과 소외의 치유를 지향하는 교육관-」, 『종교교육학연구』 제4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80쪽 참조. 김은진,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제4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54~65쪽 참조.

76)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위하여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능하고 유덕한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학생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를 선발할 때 단순히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선발할 때 인성의 측면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하고, 교사를 양성할 때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실

제2절. 평등과 조화

박중빈과 비롤리는 개인이 사회의 은혜를 받을 때 덕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그들은 덕의 형성과 사회의 평등을 밀접한 관계로 이해한다. 이는 그들이 사람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관점은 교육의 잠재적인 부분을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잠재적인 부분은 교육을 편성한 주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말한다. 그 부분은 주로 수업 내용이 아닌 비교과적인 활동과 관련되고,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문화, 교육제도와 행정조직, 사회의 분위기 등이 포함된다.⁷⁷⁾

그런데 학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예컨대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 학생, 한 부모 가족 및 청소년 가장 가족 학생, 특성화고 학생, 장애 학생 등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성별, 외모, 학업성적 등에 의해 친구와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사회복지사 등 교직원도 심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⁷⁸⁾

이처럼 학교의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은 덕을 형성하는 면에 어려

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책임감을 지니기 위하여 학생회와 동아리 등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77) 오석중, 「미래세대의 요구와 잠재적 교육과정의 도덕윤리 교육에의 활용」,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9, 2쪽 재인용. (김종서, 『잠재적 교육과정』, 익문사, 1976, 55쪽)
- 78) 정주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1권 1호, 한국경찰학회, 2019. 아영아, 「북한이탈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제4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구정화, 「가정환경 요인이 초등학교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제9권 1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6. 이자형·임혜정, 「특성화고 학생의 차별 경험과 학교만족도 관계에서 교사관계와 정신건강의 이중매개효과」, 『職業教育研究』제40권 2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21. 김성희,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제22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김선희 등, 「지역 아동센터 이용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제18권 제5호, 대한산업경영학회, 2020. 윤민재,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연구」, 『사회과학연구』제21집 1호,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이순희·김수영, 「학교라는 장(field)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차별경험과 대응방식: 대구광역시의 사례」, 『사회복지연구』제46권 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움을 겪을 수 있다.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은혜를 실감하고, 이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비롤리는 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한다. 비롤리에 따르면 그 학생은 자신의 고등학교를 ‘작은 나라’로 이해했다. 그 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을 통해 소속감, 용기, 사랑, 연대 등을 배웠다.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는 나라보다 더 밀접한 공간이다. 이는 학교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⁷⁹⁾

그런데 차별을 겪은 학생은 학교로부터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육에 대해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학생은 차별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덕의 형성을 강조하는 교사의 수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업 시간은 짧지만, 차별적인 교육환경이 지속되면서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다양한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구성원 사이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은 경쟁을 강조한다. 이 사회에서 교육은 학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고,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특히 배타적 경쟁의식은 덕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박중빈과 비롤리는 사람을 서로 관여하는 존재이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이 덕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학생의 덕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곧 교육이 경쟁이 아닌 조화를 추구할 때 학생들은 덕을 형성하는 동기를 지닐 수 있다.

조화는 상대를 배제시키는 경쟁의식과 상대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동일화의식을 지양한다. 조화는 상대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긴밀하게 교류하여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구현해야 할 동반자로 생각한다. 예컨대 조화는 다문화 문체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정부의 동일화 정책을 비판하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교류하면서 공속의식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⁸⁰⁾

교사와 학생이 이러한 조화를 지향할 때 학교의 만연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

79) 마우리지오 비롤리, 『나라 사랑을 말하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박익경 옮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31쪽 참조.

80) 이철승, 「같은과 다름의 관계와 유가의 어울림철학 -‘다문화’ 시대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제26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136~142쪽 참조.

다. 특히 조화는 다문화가족의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 기여한다.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과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차별하고 차별받는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배려 받는 관계도 아니다. 다문화가족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단지 다문화가족의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경쟁학습을 지양하고, 협력학습을 활성화하는 면에 도움이 된다.⁸¹⁾ 경쟁학습은 다른 학생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 방법을 선호하지만, 협력학습은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공부 방법을 지향한다. 협력학습은 일반적인 집단 학습과 구분된다. 집단학습은 단일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지만, 협력학습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다. 또한 집단학습은 능력이 뛰어난 일부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협력학습은 모든 학생이 책임의식을 갖고 학습에 참여한다. 예컨대 집단학습은 조장과 조원으로 구성되지만, 협력학습은 모든 학생이 발표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⁸²⁾

이와 같이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학생의 덕을 형성하기 위하여 평등과 조화를 학교에 구현할 것을 시사한다.

81) 오늘날 협력학습은 신자유주의의 교육사상이 야기하는 경쟁학습에 대한 대안적인 학습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미자 등,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가능성 탐색』,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80쪽 참조.

82) 추성경·손은주,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과학사, 2019, 52~54쪽 참조.

제5장. 결론

이 글은 박중빈과 비롤리 철학에 나타난 자유관을 분석하였다.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각각 사은론과 공화주의를 토대로 형성된다. 박중빈은 천지은·부모은·동포은·법률은 등의 사은을 현실에 맞게 사용한다. 비롤리는 자유와 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시대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한다.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를 이해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유를 구속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사욕에 구속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억압되지 않을 때 자유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들은 자유를 방임으로 보는 소극적 관점을 비판하고, 자유를 사욕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는 적극적 관점을 수용한다.

그들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덕과 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덕의 형성을 중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덕의 형성을 돕기 위해 사회의 평등이 필요하다. 사회가 평등할 때 개인은 덕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공로자를 대우하고 그의 삶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덕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박중빈과 비롤리의 자유관은 덕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교사는 자신부터 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다양한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학생은 교사의 관여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둘째, 학교에 만연한 차별과 경쟁을 극복하고, 평등과 조화의 가치를 구현할 때 학생의 덕이 형성될 수 있다.

박중빈과 비롤리의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이 발생시키는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면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관은 외부의 관여를 자유의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와 교사 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비판한다. 예컨대 그 자유관은 학교 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법의 제정과 교사의 적극적인 관여를 ‘폭력’으로 간주한다. 또한 그 자유

관은 사욕을 권장하기 때문에 교육이 학생의 지나친 사욕의 발현을 문제 삼지 않는다.⁸³⁾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관점을 반영한 교육은 학교 내 차별과 사욕의 지나친 발현으로 인한 배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박중빈과 비롤리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들의 자유관은 법과 교칙을 통해 학생에 대한 차별과 학교 폭력 등 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들의 자유관은 사욕의 지나친 발현을 지양하고, 덕의 형성을 중시한다. 곧 그들의 자유관은 덕 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덕을 지닌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사한다.

83) 밀튼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민병균·서재명·한흥순 옮김, 자유기업원, 2011, 48~244쪽 참조.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金山泰洽 편, 『佛敎正典』, 佛敎時報社, 1945.
 마우리시오 비롤리, 『나라 사랑을 말하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박의경 옮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원불교 교서편수위원회 편, 『圓佛敎全書』, 圓佛敎正化社, 1977.
 圓佛敎 圓光社 編, 『圓佛敎資料叢書』, 圓佛敎出版社, 1984.

2. 단행본

- 金基圓, 「圓佛敎 自由觀」, 『圓佛敎思想試論』 I 輯, 圓佛敎出版社, 1982.
 김비환,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김종서, 『잠재적 교육과정』, 익문사, 1976.
 남미자 등,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가능성 탐색』,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변동열 옮김, 청아람미디어, 2007.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민병균·서재명·한홍순 옮김, 자유기업원, 2011.
 앤드류 피터슨, 『시민 공화주의와 시민교육』, 추병완 옮김, 하우, 2020.
 이사야 벌린,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박동천 옮김, 아카넷, 2014.
 추성경·손은주,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과학사, 2019.
 필립 페팅, 『신공화주의』, 곽준혁 옮김, 나남, 2012.

3. 연구 논문

- 강대현,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사회과 교육』 제 46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7.

- 강창동,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제18권 제3호, 안암교육학회, 2012.
- 구정화, 「가정환경 요인이 초등학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권 1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6.
- 권동우, 「원불교의 대안교육 -사회개혁과 소외의 치유를 지향하는 교육관-」, 『종교교육학연구』 제4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김선희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5호, 대한산업경영학회, 2020.
- 김성희,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2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김은진,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김연미, 「자유와 법의 관계 -공화주의적 자유 관념-」, 『亞細亞女性法學』 제14호, 아세아여성법학회, 2011.
- 박영도,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과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 『사회와 철학』 제31집,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 박지원·김회용, 「신자유주의 교육의 정서로서 ‘우울’과 ‘잔혹한 낙관주의」, 『교육사상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9.
- 박 혁, 「정치 현상으로서의 자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적 자유’ 개념-」, 『사회와 철학』 제18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 박희중, 「소태산 박중빈의 인권사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54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 방립천, 「사은사상과 세계의 조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 석인선,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신호재, 「공화주의적 자유와 애국심 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39호, 한국

- 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 아영아, 「북한이탈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 제4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 오석중, 「미래세대의 요구와 잠재적 교육과정의 도덕윤리 교육에의 활용」,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9.
- 윤민재,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연구」, 『사회과학 연구』 제21집 1호,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 이계일, 「공화국 원리의 함의에 대한 이념사적 고찰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의 유형화와 그 법적 구체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法學研究』 제21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1.
- 이상원, 「은(恩)의 연원과 실천원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7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 이순화·김수영, 「학교라는 장(field)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차별경험과 대응방식: 대구광역시의 사례」, 『사회복지연구』 제46권 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 이자형·임혜정, 「특성화고 학생의 차별 경험과 학교만족도 관계에서 교사관계와 정신건강의 이중매개효과」, 『職業教育研究』 제40권 2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21.
- 이철승,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 이철승, 「같음과 다름의 관계와 유가의 어울림철학 -‘다문화’ 시대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6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 이충한, 「본래적 공화주의와 도구적 공화주의 -자유와 자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28집, 대한철학회, 2013.
- 이한메, 「한국 근대 신종교의 ‘자유’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원불교의 교리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5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정주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1권 1호, 한국경찰학회, 2019.
- 정태창,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의 딜레마」, 『철학사상』 제47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 조영태, 「도덕 교육의 목적으로서 합리적 자유의 의미: 피터즈와 관념론을 중심으로」, 『韓國教育』 제28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조일수,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倫理研究』 제80호, 한국윤리학회, 2011.
- 최유진, 「공화주의적 여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페터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7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9.
- 한상수, 「법에 있어서 덕의 역할」,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6.

4. 학위 논문

- 김형근, 「신자유주의에서 신공화주의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최준화, 「자유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 인터넷 기사

- 강법진, 「천도, 치유된 아픔이 평화세상 이끈다」, <원불교신문>, 2016년 4월 15일(<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69> (20210608 검색)).
- 윤관명, 「오월의 금남로 붉은 꽃 지던 날 광주교당 범종은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원불교신문>, 2021년 5월 12일(<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56> (20210608 검색)).